상지대학교 해외연수보고서



프로그램명	2019년도 하계방학 중국 단기 해외연수		
연수대학	중국 북경수도사범대학교	연수기간	2019.07.08~2019.08.09.
성 명	-	학 번	-
단과대학	-	학 과	-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중국 도착후 북일구에 위치한 수도사범대 부설 국제문화대에서 숙박하며 중국어 초급을 수강하였는데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중국어와 약간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한자도 아무거도 아는 것이 없는 완전 초급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어렵게 느껴질 것이나 조금이라도 중국어에 지식이 있다면 수업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느꼈다. 다만, 완전 초급자의 경우라도 수업에 열의있게 참여하고 약간의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중국어가 늘어날 수 있을 커리큘럼과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수업에 관련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한달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에 축약해서 알차게 수업을 받은 것 같다.

다음으로 강사에 만족도를 평하자면, 강사들은 본인들 또래의 본교(수도사범대학) 소속의 학생이였으며 또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통하는 것도 많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것도 느낄 수가 있었다. 또한, 수업 분위기도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문제가 발생시 강사들에게 문의하면 나서서 처리도 잘 해주어 만족스러웠다.

학생 케어에 관한 부분은 거의 강사들에게 문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숙소 같은 생활부분은 로비에서 해결해 주었다. 중국내의 타교 학생들이 본인들(상지대) 학생들을 케어해 주었고 매우 세심하고 잘 신경써 주어 고마웠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는 4인실이 기본이고 2인실, 1인실이 있었으며, 4인실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여유분이 있을시에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이 가능했다. 각 방들은 넓이와 비치기구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큰 차이는 4인실은 2층침대로 되어있으며, 메트리스가 매우 딱딱해 바닥에서 자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2인실 부터는 정상적인 침대 매트리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시설들은 수영장, 헬스장, 식당, 매점등이 같은 건물내에 위치해 있고 수영장을 사용해본 결과 시설은 깨끗하고 좋았다. 또한 세탁실과 공용주방등도 있어 편리했다.

주변 환경은 은행가로 사무실들이 즐비한 모습이였으며, 밥을 해결할 식당가가 있었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서 편했으며, 생활에 불편은 없었다.

교통은 거의 띠띠라고 하는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했으며, 시설또한 깨끗하고 좋았다. 지하철 역 또한 인접해 있어서 편했던거 같다.

생활비는 본인이 여행을 많이 다닐 것인지 쉴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났지만 보통 하루에 식대는 70위안정도면 충분했고 편의점에서 파는 반찬과 밥을 사먹는다고 하면 더 줄일수 있다. 그 외는 교통비 정도이고 기념품이나 쇼핑또한 저렴한 편이라서 생활비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이번에 중국에서 한달 조금 넘게 체류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마냥 더러울것같다는 중국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 또한 친절했다. 만약 이글을 보고 단기 또는 장기연수에 관심이 생긴다면 본인의 여행타입을 잘 생각해서 돈을 가져가기 바란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돈을 더 챙겨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학교 주변 식당이 매우 붐비기 때문에 점심을 현명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인이 느낀 이번 연수의 단점들을 말하자면 한달 정도 쉬러 온다는 마음은 좋은데 중국어에 관심도 없고 수업에 열정이 없다면 오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적어도 열의있는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은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생활의 궁금증 또는 팁들은 도착하면 대전 한밭대 학생들이 다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본교학생들은 약35일중에 2번정도 보았다. 본인이 단기 또는 장기를 다녀온 학생을 안다면 궁금한점을 물어보는 방법또한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서 먹는 음식 및 식당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선생과 도미노피자(없어졌다) 사이의 골목에 있는 천미인가(川味人家)와 바로옆의 진비엔의 음식들은 싸고 맛있고 양도 많다. 천미인가에 량면(四川凉面)이 국수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매우 맛있고 덮밥종류와 꼬치도 싸고 맛있다. 진비엔은 꿔바로우와 탕추리지, 궁보계정, 계란볶음밥(단챠오판), 잡채(챠오허차이) 그 외에 맛있는 것이 많다. 다음으로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반찬들도 싸고 맛있다. 본인이 고수 또는 산초등 향신료에 약하다면 부야오 샹차이(고수), 부야오 화쟈오(산초의 일종)을 외워 가는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여행정보는 무조건 많이 걷게 됨으로 운동화는 필수고 선크림도 필수다. 중국의 모든 관광지는 매우 넓기 때문에 다리가 겁나 아프다. 유의하여 돌아다니는 것이 필요하며, 북경내의 모든곳은 가볼만하며 거리도 멀지 않다. 본인이 검색하여 찾아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할말은 학교에 건의사항인데 이렇게 후기 보고서를 쓴 것을 다음에 가는 단기 또는 장기 학생들에게 워크샵때에 후기의 위치같은것이나 정보를 전파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후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또한 그전의 단기 또는 장기 조장들과의 연락을 남겨놓아서 다음에 가는 사람과 연결해 주어서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출발할때는 학교측에서 중국에 먼저 있는 상지대 학생들이 다 해줄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교 학생은 첫날에 만난것 이후로 모든 일정 및 케어는 타교 한밭대 학생회에서 진행했고 본교학생은 보지 못했다. 이런식이면 차라리 그쪽 학생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본다. 그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였으며, 기타 다른 단점 및 불만은 없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기숙사도 깔끔하고 전반적인 시설에 부족함이 없었다.
책상과 스탠드도 구비가 되어있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에어컨도 잘 나와서 시원했다. 학생식당도 입맛에 꽤 잘 맞았고,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엄청 있으시고, 학생들과 잘 교류해주셔서 재밌고 즐겁게 공부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에어컨도 잘나오고, 온수도 잘나오고, 주변에 식당들도 맛있었고, 생활비도 70만원정도 환전해갔는데 부족하지 않게 잘 썼다. 교통편도 편리하고 관광지들과 가까워서 지하철과 버스이용이 편리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핸드폰유심을 가서 샀는데 싼가격에 데이터도 풍족하고 요금제도 적당하고 잘 사용했다. 중국은행에서 중국카드를 개설해서 웨이신페이를 주로 이용했는데, 중국에 한달이상 거주할생각이라면 웨이신페이를 만드는게 정말 편리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수돗물이 깨끗하지는 않은것같다. 가끔녹물이 나와서 빨래를할 때 흰옷이 황색으로 변한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저는 중국 하계방학 중국 단기해외연수로 북경 수도사범대학교를 35일간 다녀왔습니다. 먼저 수업은 말하기와 문법 2과목을 1시간 반씩 들었습니다. 각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시고 선생님은 한국어를 전혀 하시지 못해 수업은 보통 중국어로만하시고 가끔식 영어로 단어정도만 설명해주셔서 수업내용을 알아듣기위해서라도 수업시간 외에도 중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학생케어 관련해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방학일때 가서 그런지 몰라도 현지투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저는 4인실을 썼는데 단기로 오시고 잠자리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분들에게는 4인실을 추천드립니다. 2인실과 비교해서 침대가 다소 딱딱하고 방이 작고 룸메이트가 더 많은걸 제외하고 나쁜점은 없었습니다. 청소는 청소해주시는 분이 이틀에 한번 오셔서 쓰레기통을 비워주시고 방•화장실 청소해 주셨습니다. 방에 문제가 생기면 로비에 문의하시면 엔지니어분들이 늦게 오시긴하지만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에는 힘든점은 딱히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마트, 은행, 맛집이 정말 많고 10분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 개인적으로 가고싶은곳도 손쉽게 갈수있습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반발,반바지만 들고가지 마시고 꼭 가디건이나 긴바지를 1개라도 들고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밖의 날씨는 더워도 건물안에 있으면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고있는경우가 많아 예상외로 추운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수 의약품이나 모기향 등을 들고가시는게 생활할 때 큰도움이 됩니다. 샤워헤드와 필터역시 가져가셔야되고 필터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번 갈았습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5주동안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정규 수업이 있었습니다. 1교시와 2교시(각 1시간 30분 수업)가 있는데, 1교시 수업에서 중국어 문법과 단어 등을 익힌 후 2교시에 회화 수업으로 배운 내용들을 응용 및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공예 또는 서예 수업도 있었습니다. 5주 수업 중 2주는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고, 그 후엔 한국 학생들끼리 수업을 했는데, 반이 바뀌면서 교재, 수업 난이도와 교수님이 전부 바뀌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사 만족도도 외국 학생들과 수업할 때가 더 높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학생의 실력을 위해 골고루 발표시키는 등 세심히 신경은 써주셨지만, 강의력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5주간의 수업과 반 편성이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기숙사는 학교에서 4인실로 비용을 내고 예약을 해놓았는데, 4인실 침대는 매우 딱딱했습니다. 다행히 추가요금을 내고 2인실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2인실로 변경하는데에 든 돈은 한화로 대략 20만원입니다.) 방은 이틀에 한 번 청소를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과 침대커버를 갈아줍니다. 학교에 수영장도 있고,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도 꽤 있습니다. 기숙사로 한식 배달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기숙사 2인실 변경비용까지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식 값이 정말 싸기 때문에 맛집을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면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돈은 현금을 사용해도 되지만, 위챗 이라는 앱에 위챗페이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와 유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했고, 현금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5주 연수를 가는 학생들은 꼭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국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카드를 위챗에 등록한 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선 중국 번호 역시 필요한데, 중국에 오시기 전에 휴대폰 로밍을 하기 보단 한국 번호를 정지해놓고 중국에 와서 중국 유심을 사서 바꿔 끼고, 중국번호로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 휴대폰번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통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학교는 6호선 huayuanqiao 역과 가깝습니다. 지하철이 서울만큼 잘 되어 있어서 베이징 관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기 귀찮을 땐 택시를 이용했는데, 택시 요금이 정말 싸기도 하고 (요금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정해져있고, GPS가 위치를 꽤 정확히 잡아서 경로상 나의 위치 확인 가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챗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고, 요금은 직접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면 위챗페이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중국어로 중국어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어 기초가 없거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활동으로 베이징 주변 관광지를 가기도 했는데, 만리장성 등은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렵고 또 멀기 때문에, 학교에서 셔틀을 타고 같이 움직일 때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하철과 택시를 타는 것이 익숙해지면, 가고 싶은 곳을 찾아 마음껏 다닐 수 있긴 합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 내용 : ★★★★ 만족도 : ★★★★★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반을 선택할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를 듣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중국어를 배우고 참여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모든 수업이 중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간 중간 영어를 사용 할 수는 있지만, 이해와 질문을 위해서는 영어 수준도 어느 정도의 회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강사 만족도 - 만족도 : ★★★★
강사들 대부분이 또래이긴 하나,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높고 최대한 이해를 시켜주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을 해주고, 수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보 또한 함께 찾아봐주고 해결해 주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각과 출석에 대한 뚜렷한 확인이 없다는 것.

학생 케어 - 만족도 : ★★★★★
일단 한밭대 학생회 친구들에게 한 달 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 밖에 적을 수가 없다.
상지 대학생들도 있긴 했지만, 한밭대 학생회 친구들이 1부터 10가지 모두 알려주고, 오후 수업과 일정에 함께 참여도 해주었으며, 시간이 날 때 마다 가이드도 자처해서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밭 대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 시설 – 만족도 : ★★★★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축구장, 농구장, 3개의 식당과 1대의 매점, 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하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4인실의 매트는 정말 상상이상으로 불편했다는 것과 중국의 수질이 매우 안 좋다는 것.

주변 환경 – 만족도 : ★★★★★
모든 편의 시설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다. 마트,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생활비 – 만족도 : ★★★★
생각보다 초반에 지출이 높았다는 점. 숙소 보증금과 한 달 동안 사용할 핸드폰 요금 등이
초반에 비중을 꽤나 많이 차지해 몇몇 학생들은 중간 중간에 인출을 몇 번씩 더하는 경우가 생김

교통 – 만족도 : ★★★★★
서울 지하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의 위치는 신도림 또는 잠실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가까이에 6호선이 있으며, 그 지하철을 타고 베이징 시내는 40분이면 어디든 갈수 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단기연수자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
1. 도착하자마자 건조대 꼭 챙기세요.
2. 보증금 RMB 300과 핸드폰 비용 RMB 200은 따로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샤워기 필터기 꼭 챙기세요.
4. 세탁기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흰 옷은 가급적으로 피하시고 그래도 챙기신다면 속옷과 함께 손빨래를 추천해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5. 수영장은 10회 이용권이 RMB 280입니다. (수영모 필수)
6. 물은 학교 앞 편의점에서 RMB 1 짜리 드세요. (코카콜라 회사 제품)
7. 4인실 매트리스 매우 딱딱합니다. 2인실로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한화 18만원정도 입니다.
8. 냉장고가 필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시원한 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입니다. 시원한 물만 고집을 하다보면, 생각 외로 지출이 많아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9. VPN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국에서는 카톡과 한국 사이트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N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VPN은 판다 VPN으로 한 달에 1인 1만원, 2인 7천원, 3인 6천원입니다. 중국 현지에 가서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신청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날씨가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7 ~ 8월이라 매우 덥고 습합니다.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
오후 일정이 끝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국에서 일정을 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서 일정을 짜기에는 중국의 인터넷 속도와 한국블로그 접속이 어렵다는 것이 꽤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미리 한국에서 관광지를 검색해보고 가시는 편이 훨씬 시간 절약이 되고 편하실 겁니다.
참고로 수도사범대는 6호선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8시 30분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50분씩 수업을 하고 11시 50분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첫날은 시험을 보고 수준별 수업을 했습니다. 수강과목은 중국어로 중국 원어민 선생님께 배웠고 저는 기초가 없어서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런지 초반에 너무 정신없이 나가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기에 좋았고 한국어로 배워도 어려운 문법같은 경우에 전혀 한국어를 못하시는 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가르쳐주셨고 마지막에 저희한테 엽서도 써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오전에는 중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활동 같은 걸 주로 했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빨간매듭을 만들기도 하구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종이접기도 했습니다. 오후수업이 없는 날은 버스를 빌려서 같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만리장성, 고궁, 천안문 등 많이 다녔고 진짜 크고 멋있었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저는 4인실 기숙사를 사용했고 3명이서 사용했습니다. 기숙사는 크게 불편함없이 좋았고 홀수층에 공용주방이랑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고 이틀에 한 번씩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면서 바닥을 청소해주셨습니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하고 학교 근처에 먹을 곳도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은행이랑 마트,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수업 후 따로 구경하러도 다녔습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같습니다. 저는 별로 준비를 안해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간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을 유심도 만들고 은행에서 카드도 만들었는데 한달 동안 유용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VPN은 무료로 사용가능하지만 중간에 다들 안돼서 구입했었습니다. 같이 하면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카드보다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게 잘 되어있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통장에 잔고를 확인할 때 카드로 확인하거나 앱을 깔아서 확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학교 세탁기가 현금사용이 안됐고 위챗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버스를 빌려서 구경한 것은 편해서 좋았지만 같이 이동해야 해서 불편한점도 있었습니다. 같이 간 외국인들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화장실이 별로고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수업 후에 따로 구경하러 다닐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내몽고도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정말 넓고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습니다.
중국은 차가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서 조심해야하고 지하철을 타면 짐검사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처음에 가서 중국어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 배정을 받게 되었다. 저는 제일 기초반이었는데 병음 성조 이런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모든 설명과 진행을 중국어로만 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야만 했다. 내가 배정받은 기초반의 경우 수업을 듣는 인원이 다른반에 비해 소규모였다. 8명정도 되었는데 그랬던 탓인지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셨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수업시간 이외에도 선생님들과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도 있었고 중국어 이외에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의 시설이나 학교의 위치는 정말 만족했다. 숙소건물은 수도사범대학교의 기숙사겸 호텔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했고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쓰레기통 갈아주시고 이불 갈아주시고 바닥까지 닦아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숙사는 수업 듣는 강의실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했다. 학교는 6호선인 Huayuan Qiao 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는데 역과 가까운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금이 한국돈으로 800원정도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택시보다 훨씬 부담이 적었다. 학교주변에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았다. 진비엔에가서 계란볶음밥을 먹어보는걸 추천한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이번에 다녀온 단기연수가 중국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막상 가서 수업 듣고 생활해보니 수업이외에 나 혼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북경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간다던지 쇼핑할 수 있는 거리 등 내가 가고싶은곳을 찾아갈 수 있었다. 참고로 어디를가든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걸 추천한다. 생각보다 학생할인이 되는곳이 많아서 돈을 아낄 수 있다. 나는 중국에 가서 위쳇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중국계좌를 만들었는데 현금보다 훨씬 간편하다. 많은 음식점에서 위쳇을 통해 주문하고 도난위험도 줄어들고 한국으로 치면 따릉이 같은 자전거들이 길거리에 많은데 그걸 이용하거나 우버와 같은 디디를 이용하려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접속하려면 VPN이 필요한데 중국가서 인터넷 서치 하려면 한국에서 꼭 앱 여러개를 깔아가는게 좋다. 중국음식같은 경우 훠궈나 꿔바로우 생선찜 같이 입맛에 잘 맞는 음식도 있엇지만 전반적으로 느끼한 음식이 많았다. 한식이 먹고싶을때는 마미손에서 기숙사로 배달을시켜서 한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가져간 몇몇개의 반찬이랑 기숙사 1층에서 레스토랑에서 밥만 사서 방에서 먹은적도 있었다. 환화 500원 정도에 1인분 파는데 양도 맛도 괜찮다.

약 5주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문화체험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덕분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중국에서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학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중국어를 모르고 가서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진행하는데 2~3일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중국어 질문을 하고 반복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수업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단기간에 중국어 실력이 어느정도 늘어 기쁩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는 호텔 같아서 이불을 일주일에 한번 갈아주시며 청소를 이틀에 한번 해주셔서 좋았으며 여름에 가기 때문에 벌레가 많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벌레 한 마리 없고 주방과 세탁실이 있어 편리 했으며 비 오는 날에도 매점이 기숙사 2층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계속 나와 쾌적했으며 기숙사 9,10층이 강의동과 연결되어 편리했습니다.
주변에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지하철과 가까워 쉽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대외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만리장성입니다. 더운 날 이였지만 친구들과 다 같이 산에 올라서 만리장성을 봤습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만리장성을 갈 땐 꼭 케이블카 타세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많이 못하고 영어도 못하지만 외국인 친구사귀면서 중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중국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중국어 학원 다닐까 어학연수를 갔다올까 많은 고민 했지만 어학연수가 큰 도움이 되어 중국문화, 중국어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기초반의 경우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상반의 경우 반이 자주 바뀌거나 바뀌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재비를 내야한다거나, 전문 강사가 아닌 다른 강사 분들이 가르쳐주셔서 조금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결여되는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 및 현지 환경에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가 도심지와 조금은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기연수 학생들도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확실히 전공에서는 배우지 못한 중국 현지의 발음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본토의 발음은, 공부에서 배울 수 없는 가장 정확한 가르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행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도가 있다고 생각되나, 중국에 왔으면 한 번쯤
갈만한 곳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영어가 되시면 조금 편리한 중국단기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유의사항은, 다음에 가는 학생들에게 충고해드리고 싶은건
중국어공부하고 오시라는 것! 정말 꼭 꼭! 추천드립니다.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첫 날 수도사범대학교에 도착하여 기숙사 입주를 마친 후, 다음날부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반을 배정받아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크게 세 개의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저는 그 중 중간반이었습니다. 한 개의 반을 제외한 두 개의 반은 다른 외국 친구들과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어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어요.

수업은 수도사범대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일상 회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실생활에 나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처음에 배운 책에는 병음이 있었는데, 이후 바뀐 책에는 병음이 없어 자연스럽게 한자도 익힐 수 있었구요. 매 수업마다 새로운 표현과 문법을 배우고, 책 뒤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들이 듣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 중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단어시험과 작문 에세이 숙제도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느슨해지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첫 날과 둘쨋 날은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나와 도와주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수도사범대학교에 장기 어학 연수생인 타대학교 학생이 나와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셔서 중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중국어 통역이 급히 필요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생활을 하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거 같네요.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학교에 도착한 첫 날, 기숙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기숙사는 4인실이 기본이지만, 금액을 추가하면 2인실 혹은 1인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요금을 추가하고 2인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인끼리 방을 배정해주는 편이지만, 저는 외국인 룸메이트와 생활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룸메이트가 귀국하여 약간 아쉽긴 했지만, 외국인 친구와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학교 기숙사 생활 환경은 꽤 좋은 편이에요. 침대와 책상, 수납장이 방마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고, 방 내에 화장실도 있어요. 청소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해주셔서, 기숙사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방의 크기도 작지 않아, 2인 1실로도 충분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베이징 시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분정도 걸어가면 지하철 역이 위치해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은행도 많고, 맛있고 싼 음식점들도 있어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 1층에 수영장도 위치해있어 이용권을 구매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기 어학연수생은 구내식당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중국은 물가가 저렴해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값과 교통비도 저렴해 생활비 예산을 적게 잡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오긴 했어요.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중국에 가기 전에는 중국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빠르게 지나간 5주였던 것 같아요.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외국인 룸메이트와의 생활, 여행,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등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중국어도 많이 늘었구요.

다만 수업이 일상 생활, 회화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미리 공부할 책을 사가서 수업이랑 병행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시험에서 다루는 단어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단어도 차이가 있어, 단어장도 준비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유심을 구매해 갈지, 아니면 가서 유심을 구매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후자를 택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핸드폰을 이용한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 번호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계좌 개설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위폐를 받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어 편했어요! 학교 앞에 있는 ICBC 은행에서 단기 연수생이어도 다 계좌를 개설해주니, 꼭 계좌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베이징시의 크기는 서울의 28배에 이를 정도로 베이징은 엄청 큰 도시라, 구석구석 볼거리와 맛집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오래 베이징에 머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 잠깐 관광지를 다녀오거나 새로운 지역을 가보곤 했는데, 다양한 베이징의 매력을 맛볼 수 있어 좋았어요. 따종디엔핑과 같은 맛집 어플이나, 디디추싱과 같은 택시 잡는 어플, 고덕지도는 꼭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타지에서 5주간의 생활이라니, 중국에 가기 전의 저처럼 겁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은데 막상 가면 도움을 받을 장기 연수생 분들도 있고, 중국어를 못해도 바디랭귀지로 다 통할 수 있더라구요. 매일매일 중국인 선생님께 중국어로만 수업을 듣는 것도 중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수업 및 학교생활 (수강과목 내용 및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생 케어 등)

저는 중국어를 여자친구한테 배워서 잘하지 않고 기본만 할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데 첫 날부터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사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일제히 안쓰고 오로지 중국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셔서 그런지 본내용도 모르는데 설명은 더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끝난후에는 여자친구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딱 3번 수업하고 여자친구에게 업혀가는게 너무 싫어서 짧은 영어를 사용해서 정말 필요한것만 물어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제일 낮은반이셔서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하셔서 4일째부터는 수업을 따라가기 많이 편해졌습니다.
2주동안은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관광을가서 중국어를 많이 공부할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와 돌아다니면서 정말 기본 적인것과 수업시간에 한것들을 복습했습니다. 2주가 끝나고 오후에 관광스케줄이 없기 시작한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데 2일동안 해보니깐 너무 발음과 한자를 둘다 외우고 하는게 어렵고 잘 안외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2주를 생각해보니 기본적인거를 여자친구랑 회화하고 선생님들이랑 회화를 하면 훨씬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후로 공부를 따로 하지않고 정말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많이 중국어가 늘었습니다. 그보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대답을 기다려주시고 몇 번을 더 물어봐주고 답해주면서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2. 숙소 및 현지환경 (숙소 시설, 주변 환경, 생활비, 교통 등)

숙소는 좋았지만 저희 학교와 얘기한것과 다르게 가면 맘대로 2인실로 업그레이드 할수있다고 했지만 숙소에서는 4인실로 예약이 되있는거라고해서 돈을 내었었도 같은 일행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3일정도 살게 되어었는데 초반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값, 냉장고값, 냉방비값을 예상보다 많이 나갑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엄청 덥기 때문에 냉방비는 필수하고, 냉장고는 중국에서 모든 음료수와 물이 다 안 시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무지 싸기때문에도 냉장고는 필수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인실로 업그레이를 하는 이유는 매트릭스가 완전 차이가 나서 확실히 돈을 더 내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필수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거의 한국돈으로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다른 시내보다도 깨끗하고 교통도 많이 편리합니다. 생활비는 60만원정도 가져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유명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관광을 많이 가고 싶다면 100만원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자유기술> (경험을 통한 유용한 정보, 유의사항, 여행정보 및 대외활동 등)

저는 평소에 농구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해외를 나기서 다른 나라사람들과 농구를 해보는게 소원이었습니다. 막상 기회가 오니 회화도 안되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는것도 별로 없는 중국어로 서툴게 공을 빌려 농구장으로 가서 농구를 하는데 농구장에있던 중국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많이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동갑인 친구를 만나며 위쳇으로 대화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친해되어 어찌보면 중국인 친구를 얻게되어 너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소는 2번과 같이 3개는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었서 여름에는 10회권을 다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수영복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비가 무지 쌉니다. 띠디를 이용해서 4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타면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관광지를 갈때에는 학생증을 가지고 가격 정말 많이 할인이 되어 유용하게 쓰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합니다. 공부하는시간은 하루에 한시간씩만 하고 많이돌아다니면서 회화를 늘리는 것이 최단시간에 중국어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3일빼고 매일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활동사진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진 추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건물입니다.
수업하는 건물과 연결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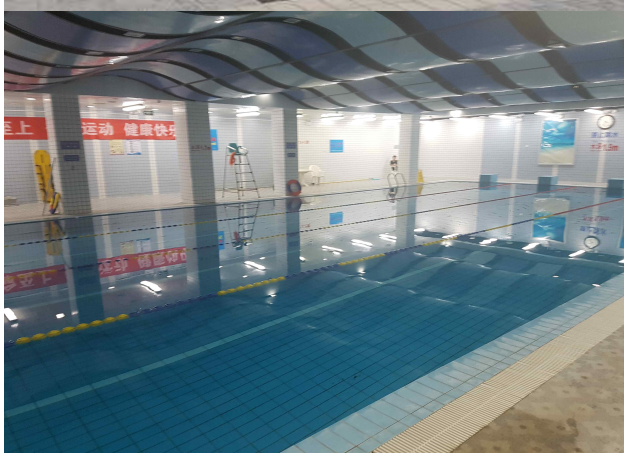
▲학교 남문입니다.

- 오후 일정 1

- 오후 일정 2



- 오후 일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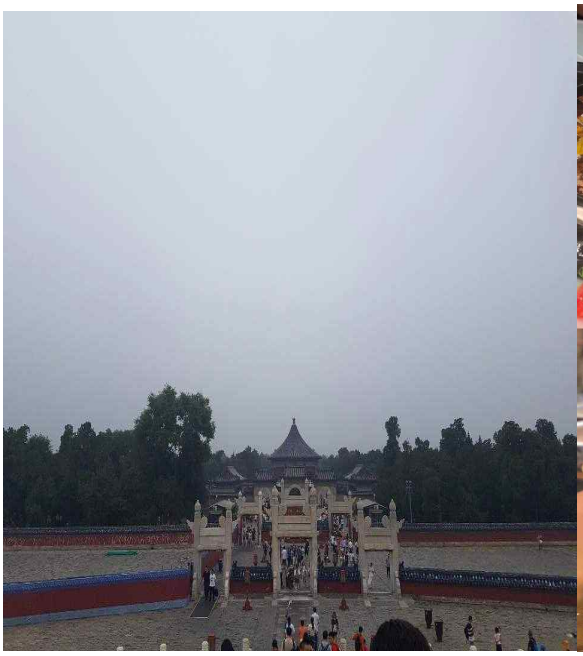
- 숙소 부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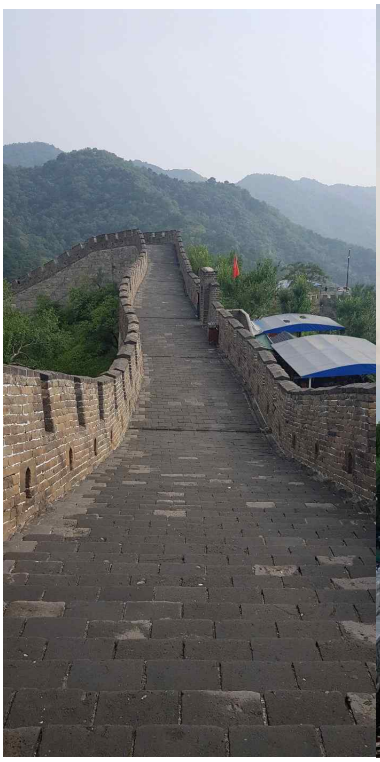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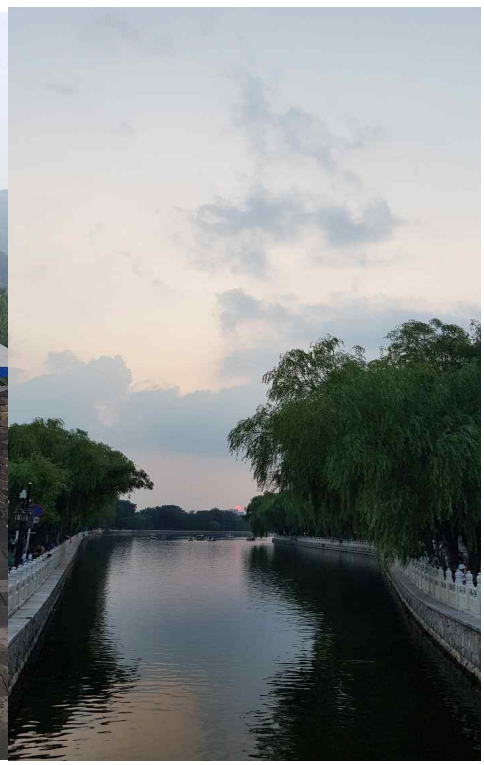



星巴克咖啡
STARBUCKS
COFFEE









▲만리장성



▲천안문



▲이화원



▲정말 맛있었던 훠궈



▲옥류관 평양냉면

